

한화종합화학, GMT 중국시장 개척

2003년 12월부터 본격 생산 ... 1200톤 생산능력에 5월 2차 증설

한화종합화학이 1990년대 중반 독일 BASF에서 도입한 GMT 생산기술이 본 궤도에 올라 중국 GMT 시장 개척에 돌입했다.

한화종합화학은 2003년 11월 GMT Press 가공공장을 중국 북경에 완공해 12월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

한화종합화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GMT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Sheet 생산능력 1만8000톤, Press 생산능력 8000톤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중국 공장은 Press 가공공장이다.

중국공장의 생산능력은 1200톤으로 2004년 5월 2차 증설할 예정이며 2차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이 2400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GMT 2400톤은 자동차 15만대에 사용되는 분량이다.

현재 중국 생산제품은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있으며 2002년 당시 현대자동차 북경공장 생산량이 6만대로 예상됐으나 2004년 현재 15만대 이상으로 전망이 수정되면서 한화종합화학 역시 2차 증설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GMT는 Steel 소재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범퍼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엔진의 언더커버, 트렁크 바닥의 Floor 등에 사용되고 있다.

GMT를 생산기업은 세계에서 4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ASF에서 분사한 Symalyte, GE Plastic, 일본GMT와 한화종합화학 등이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Symalyte, GE Plastic 등은 아시아보다는 미국, 유럽 시장 등에 주력해 왔으며 일본GMT는 기술력 부족으로 한화종합화학의 공급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Symalyte, GE Plastic 등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안에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화종합화학의 중국 GMT 생산공장은 중국시장 공략에 있어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물류문제와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단가인하 요구가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2004년 전망을 무조건 밝게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화종합화학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까지 물류시설이 미비한 상황인데 중국 GMT공장이 북경에 위치해 있어 자동차 최대 생산지역인 장춘까지 GMT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는 등 중국 전 지역에 공급하기 힘들다”고 밝혀 물류 상황을 중국시장 공략에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또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단가인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제값을 받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보다 GMT를 먼저 생산했던 일본에서 GMT가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는 Steel 가공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 GMT가 자동차 시장을 파고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최근 Steel 가공기업들의 기술력이 꾸준히 상승해 GMT 시장을 역공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GMT에 시장을 내주었던 Steel 가공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따라 GMT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03>